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5월 10일**

기업을 상속할 자 딛3:7-15

지난 주에 우리는 귀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미 영원히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살아가는 중에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므로 내 영혼이 살고 내 현장과 가정과 미래가 살아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사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답이고 세상과 나의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두 제자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시대적인 증거를 보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은 결국 세계복음화를 이루었고 핍박 속에서도 역사에 남을 응답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수 많은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제자들의 개인적 잘 못이 아니고 누구의 제자가 되었는가에 의하여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유를 정리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표현된 것이 그가 보낸 서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이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복음과 그 복음의 현장 적용에 대하여 할 말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2:11-13 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피하는 외식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것은 주님의 수 제자로서 조금 결정적인 부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최고의 이슈였던 할례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도 하였고(갈2:3)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의 경우는 일부러 할례를 시켜 사역에 지장이 없게도 하였습니다 (행16:3)

이처럼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최고 이슈였던 할례에 대하여 이처럼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복음 이해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려면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해야 할 것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차이 일 것입니다. 바울은 행9:15에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부활 메시지를 듣고 행1:8을 언약으로 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처음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이후에 뭔가 모르게 차츰 차츰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주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록이 사라져 갔습니다. 이유가 기록된 곳은 없으나 누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사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제자들의 인생과 역사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복음 이해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에 대한 차이가 두 사도의 제자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2가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확실히 정리하고 2번 째는 우리도 따라 가야 할 세계복음화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기업을 상속할 자

1)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딛3:5 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 외에는 세상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다 더 귀한 사람은 세상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권세를 주십니다.
2) 이 권세를 누리는 비밀이 말씀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 임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권세를 먼저 영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잊지 말고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 그 사람

1) 밖에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준비된 상속자 곧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게 하시고 남길 자로 쓰실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이런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하나님의 남은 자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2) 말씀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행9:15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하는 중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13:2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3) 드로아에서 한 참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문이 막혀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오라는 환상의 말씀을 받고 마게도니아로 갔고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 가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같은 원리로 그 다음 다음의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 이렇게 하여 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전도라고 합니다. 핵심은 말씀과 기도 입니다. 그것으로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길이며 여기에 대한 훈련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오는 중입니다.
5) 제6차 전도 집중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원을 가진 전도자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된 성경적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오직 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인생을 재창조 할 것입니다. 현장과 세계를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재창조 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지금 일어나길 바랍니다.